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

본문 : 야고보서 4:1-6

우리는 어떤 친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발견한다. 어떤 친구와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헤이해지고, 놀고 싶고, 쾌락을 좋아하고, 죄 짓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남 허물을 찾고 싶고, 그래서 삶이 점차로 세속화 되어가기 쉽다. 어떤 친구와 같이 있으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고, 남을 칭찬하고 싶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갖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친구를 소개한다. 우리는 어떤 친구와 더욱 가까워져야 할 것인가를 결단 하기 바란다.

1.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 친구란 세상의 표준을 받아드리고 사는 자이다.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는 가치관과 사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참여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얻은 가치관을 따라 참여해야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세상에 속한 것들의 가면을 벗긴다.

4: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그들은 일반적으로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가 정욕적이되어 갈 때 그 특징은 다투기를 좋아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정욕적이 될 때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이 될 때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정욕적이 되면 욕심을 부리게되고 그래서 탐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다. 심지어 살인으로 이끌기도 한다.

정욕적인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못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자원과 능력으로 산다. 제한된 자원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기도를 해도 남을 대접하고자 하기 보다 탐심을 위하여 기도한다.

4: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얻는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다. 항상 결핍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목적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니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 대부분 기도의 동기는 자기의 욕심을 만족 시키기 위함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없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욕심으로라도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큰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단호하게 책망한다.

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관계로 비유한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이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사람은 간음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다고 말한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본 남편과는 원수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간음한 여인을 사랑할 남편은 이 세상에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친구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과 벗된 삶을 살므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 지옥을 맛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 힘들고 주일 성수도 힘들고 헌금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인색하다. 봉사 생활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한다. 봉사 생활도 너무나 기쁘다. 전도도 너무나 기쁘다. 예배와 찬양이 너무나 기쁘다. 세상과 벗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든지 하나님과 벗이 되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했다. 하나님과 세상의 태도와 가치관과 인식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고 단호하게 말했다.

II.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

일세기에는 벗이란 한 영혼으로 간주 되었고 이것은 “같은 태도와 가치관과 인식을 품고

서 사물을 같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다.

4:5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는 성령의 요구를 마음 깊이 간직한다. 또한 비이기적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사는 자이다. 하나님의 친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4:5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NASV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안에 거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의미로 번역했다. 하나님은 우리안에 다른 영이 있을 때 우리를 시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만약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한다. 그것이 시기이다. 시기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 시켜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독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도우심을 계속 주신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게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다. 손님 대접한 것을 보라. 그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는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부담 없이 도움을 구한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망서림 없이 순종했다. 사랑이 없이는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친구는 겸손한 사람이다.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한 마음이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자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 해 주지 않아도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다.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바보 취급을 당해도 다만 기쁠 뿐이다.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친구는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야 한다.